



2대리구 큰개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청소년 주일 2022. 05. 29. (다해) 제2323호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2독서** 에페 1,17-23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24,46-53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사랑의 섬세함



교구 청년청소년국장,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사무국장 | 문창규 베드로 신부

“2021년 주일학교 학생 수는 코로나19로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여 초등부 36.2%, 중등부 25.4%, 고등부 11.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1년 분석 보고서)

청소년·청년사목의 위기는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청소년·청년사목은 대형 개신교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청년사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말에 더 힘이 실리는 듯합니다. 정말 청소년·청년사목 문제의 어려움을 대형 개신교 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곧 다가올 일상이 회복된 사회에서 우리는 청소년·청년사목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청소년·청년사목에 활기가 넘치는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며, 그 체험의 밑바탕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세세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하신 당부를 잊지 마시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의 섬세함,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의 섬세함, 랩톤 두 닢을 넣은 과부를 알아보신 섬세함, 신랑이 늦어지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챙기는 섬세함,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빵 조각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시는 섬세함, 아침이 될 무렵 솥불 위에 물고기를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섬세함. 사랑의 섬세함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서로 돌보아 주고 복음이 스며들어 있는 열린 환경을 만드는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곳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44항~145항)

형제자매 여러분, 대형 개신교 교회의 청소년·청년사목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신앙교육 및 선교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의 열정입니다. 이것 역시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한 섬세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도 대형 개신교 교회 못지않게 청소년,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회를 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닐까요? 바로 섬세한 사랑 말입니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과 청소년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사랑의 섬세함으로 청소년·청년들과 동반하며,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 구원사업의 증인(루카 24,28)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우리 교회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느님과 종교와 교회라는 말들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그들의 감수성은 일깨워질 것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39항) **▶▶▶**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해 ‘와서 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데 이어, 올해는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경청’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말씀이 되풀이되고, 신약에서 바오로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응답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라고 말씀하시며,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에게 듣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이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 내적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은 귀를 통해 겉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경청하여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청은 대화와 소통에서 꼭 필요합니다. 좋은 소통은 사람을 직접 만나 공정하고 당당하며 정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경청입니다. 그러나 엇듣기와 같은 나쁜 경청도 있습니다. 오늘날 소셜 네트워크가 발전하면서, 엇듣고 엮담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를 이용하려는 유혹이 더욱 생겨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 자기 말만 하고 경청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청이 어려운 까닭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상처 입은 이 시기에 사회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이 쌓여 만들어진 ‘가짜 정보의 유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필요합니다. 사목 활동에서도 말하기에 앞서 ‘듣는 귀의 사도직’은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애덕의 행위입니다. 합창단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각각의 목소리가 함께 어울려 노래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지닌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다른 이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회의 친교에 참여합니다.

이제 시노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노드가 서로 경청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샤를 드 푸코의 영적수기

사하라의 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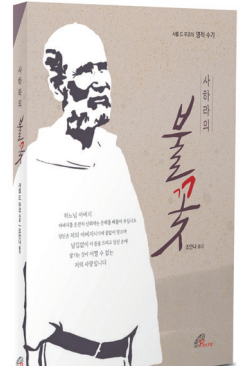


나의 하느님! 오직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위한 삶

샤를 드 푸코 성인이 남긴 복음 묵상, 편지, 피정 노트에서 발췌한 단편적인 글들을 트라피스트 수사, 성클라라수도회의 잡역부, 그리고 사제, 사하라의 은둔자로 머문 삶의 순서에 따라 엮은 책입니다. 지난 5월 15일, 시성식을 앞두고 새롭게 문장을 다듬고 편집하여 독자들이 생생하고 수월하게 샤를 드 푸코 성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개정판입니다.

샤를 드 푸코 성인의 감동적인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따라가며 그가 남긴 복음 묵상, 피정 노트, 편지글을 모았기에 그의 내면생활을 깊이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추천 글과 그의 생애를 짧게 기록한 부록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관상과 사도적 활동의 통합을 증거하는 어록입니다. 참으로 하느님을 목말라 찾는 사람은 이 수기를 읽으며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샤를 드 푸코 지음 | 조안나 옮김 | 340면 | 12,000원 | 바오로딸

서로에게 밥이 되어주십시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탄생 100주년

음력 5월 8일, 오는 6월 6일은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1922~2009)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로 이를 기념하는 추모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모 미사 | 6월 6일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오후 3시 군위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에서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의 주례로 추모미사가 봉헌됩니다.

추모 사진전 | 6월 6일부터 13일까지 성모당에서 김 추기경님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됩니다.

연극 상연 |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에 관한 연극이 7월 14일과 15일 오후 7시 30분 범어대성당 드망즈홀에서, 17일에는 포항 4대리구청 요안나홀에서 같은 시간에 상연될 예정입니다.

특히 6월 6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 주는 삶을 살다간 모든 이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1년

계속된 전주지역에서의 사목방문

10월 2일 월요일

오전에 성인 영세를, 오후에는 학교를 강복했다. 페네 신부의 요청에 의해, 기침을 심하게 하고 식욕을 잃고 잠을 못 이루는 그를 홍콩으로 보내려 한다. 투르뇌 신부가 그를 대신하게 되는 목포는 공석(空席)이 될 것이다.

10월 3일 화요일

신부들이 떠났다. 나는 이달 5일까지 수류에 남아있을 것이다.

대구 : 용산에서 온 편지에 의하면 현재 서울 신학교에 22명의 대구교구 학생이 있는데, 그중 6명은 재학생이고, 16명은 신입생이다.

10월 6일 금요일

페네 신부와 함께 신성리(新城里)로 갔다.

10월 7일 토요일

페네 신부가 떠났다. 나는 8일과 9일 미알롱 신부댁에 머무르게 된다.

10월 10일 화요일

카닥스(Cadars, 姜達淳) 신부가 짐꾼 두 사람 외에는 안내인 보내기를 거부했으므로 미알롱 신부가 신성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나를 수행해야 했다. 우리는 장성(長城)을 지나 밤을 지내기 위해 멈추었는데, 거기서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신부와 나는 반 칸을 빌려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잤다.

10월 11일 수요일

우리는 오후에 계량(桂良)에 도착했다. 카닥스 신부는 그의 집에서 30분 걸리는 곳까지 우리를 마중 나왔다.

대구 : 로베르 신부의 편지에 의하면, 힘들이지 않고 프랑스에 도착했다고 한다. 보니파시오 사우어 신부가 서울의 성 분도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으므로 카시아노(Cassien Niebauer, 李) 신부는 부수도원장, 안드레아(André Eckhardt, 玉) 신부는 사범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10월 12일 목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계량에서 지냈다. 미알롱 신부는 금요일에 되돌아갔다. 10명의 성인 영세, 42명의 견진자가 있었다. 이곳 신자들은 그 성격이 다른 곳과는 아주 다르다.

10월 15일 일요일

카닥스 신부와 함께 40리 길을 갔는데, 때때로 비를 맞았다. 저녁때, 영포(Ryengpo)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여 조그만 일본인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작은 증기선을 기다렸다. 이 배는 저녁 9시에 닻을 올렸다.

“젊은이가 무엇으로 제 길을 깨끗이 보존하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의 청소년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 사목적 전망 ⑤

어떤 경우에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녀의 선익을 존중하려면 배우자의 지나친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심각한 불의나 폭력 또는 만성화된 무례함에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새로운 결합을 맺은 이들이 여전히 교회에 속해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파문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신앙과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증언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새로운 결합을 한 이혼한 부모들을 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 양육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241-246항)

대구대교구

순교자 현양 기행문 공모전

주제 | 친교를 통하여 복음의 기쁨을 살아간 이들

방법 | 교구 내 성지순례 후 기행문 작성(A4 11포인트 2장 이상, 원고지 10매 이상)

제출 | 월간 <빛> 사무실 방문 및 이메일 제출(E-mail : dp21lightzine@dgca.kr)

마감 | 2022년 11월 30일 (수) 문의 | 053-255-8405(월간 빛)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플라스틱 프리 또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참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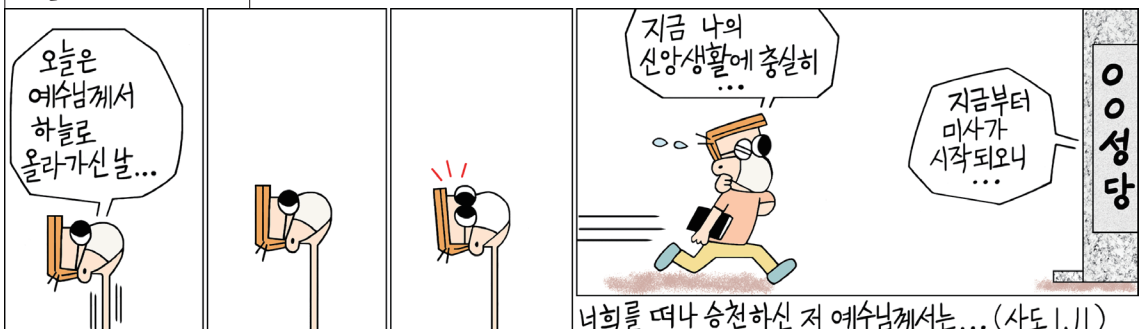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72호 정답

1.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2.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3. ③ 4. ④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4일(토) 10:00 월성성당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6월 4일(토) 10:30 앞산밀북카페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6.5(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 19~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성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6.11(토) 14:00~6.12(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왜관)

문의: (010)8353-2323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성령강림절 대피정

일시: 6.4(토) 10:00~17:00

장소: 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피정의 집)

강사: 이영숙 수녀, 윤원진 신부

미사: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

문의: (010)9045-0191 / 차량운행 함

낙태 후 화해 피정

일자: 6.3(금)~5(일) / 회비 없음

장소: 우이동 명상의집

문의: 고마르타 수녀, (010)6637-1366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 치유 피정(무료)

일시: 6.4(토) 15:00~6.5(일) 15:00

장소: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강사: 맹진학 라파엘 신부, 김완식 요셉

버스운행: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 14:00

문의: (010)4400-1344 / (043)213-9103

교구 외 | 기타 알림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할인: 성직자·수도자·장애인(전화필수)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 스카우트 신입대원 모집

대상: 초등 3학년~중등 1학년

신청: 6.12(일)까지

참조: 다음카페 가톨릭스카우트 대구지구

문의: 사무국장, (010)2810-8661

신앙 안에서 자기돌봄과 내적치유

일시: 6.8(수)부터, 매주 2시간 (10주간)

오전반 10:00~12:00(10명)

오후반 14:00~16:00(10명)

교육비: 2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피규린과 함께 하는 성경통독

일자: 6.16(목)~6.23(목)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내용: 신·구약 완독

문의: 783-9817 / (010)2546-8165

비대면 심리 독서 모임

심리적 자기이해·영적 성장에

관심 있는 분(선착순8명)

일시: 7월(매주 월요일) 9:00~12:20

주최: 베네딕도상담센터(개인상담가능)

신청: 이데레사 수녀, (010)7241-2236

The 10th



가톨릭필하모니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2022.6.12. SUN 5:00 PM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지휘 | 백윤학 협연 | 조재혁(피아노) 문의 | (010)3821-5455

경일신경과·내과

전문의 : 신경과 7인/내과 5인/영상의 1인

- 뇌졸중(중풍) · 치매 조기진단
-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 MRI · CT · 공단검진(위/대장)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출구(홀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묘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장약슬(요셉) 신부
1937년 5월 31일
- 김계룡(베드로) 신부
1947년 6월 2일

교구 | 대리구 알림

임신부 축복 미사

일시: 6.10(금) 10:00~12:00

장소: 성모당

대상: 신자 임신부(신청필수)

진행: 모임 후 축복미사

신청: 가정복음화국, 250-3077

2022년 교구 상반기 복음화교육

일시: 6.16(목), 18(토), 22(수), 25(토)

13:00~17:30, 4일 중 하루 선택

대상: 구역장, 반장, 소공동체 봉사자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 마감: 6.8(수)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태전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문의: 사무실, 324-2477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정화(올리야나)

문의: 교구법원, 253-955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래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사범꽃꽂이, 성가반주오르간, 이콘화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외과(유방·갑상선)

문의: 320-2120 / (010)7372-0076

전인병원 건강보험검진

위·대장내시경 검사에서 결과까지
당일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천주성삼요양원 조리원 채용

모집인원: 1명

학력, 나이, 자격 제한 없음 / 월급직

근무시간: 6:00~15:00 / 10:00~19:00

위치: 신매역 5번 출구, 천주성삼병원 뒤편

문의: 795-9004

바오로딸 6월 신앙아카데미

일시: 6.18(토) 15:00~16:30

주제: 예수성심의 사랑·성시간

집전: 총대리 장진호 요한보스코 주교

신청: 바오로딸, (010)6681-5185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6.11(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 수녀, (010)8682-4237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춤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_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M'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루카)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진료문의: 216-7345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건강검진
전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입구 **1688-7667**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 정가 1,500원, 1년 구독료 18,000원

▶ 우편 구독 : 정가 1,800원, 1년 구독료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 053)250-3158, 252-5392